

투데이

여수·순천·광양 소나무재선충 비상

올들어 첫 발생...국제행사 앞두고 확산 방지 총력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둔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됐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복방수염하늘소 등 매개 곤충의 활동이 왕성해져 조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야산(7그루), 순천시 해룡면 선상리 야산(8), 광양시 진상

면 금리리 야산(3)의 소나무 18그루에서 재선충이 발견됐다.

도는 감염된 소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불태웠고, 잘린 나무 밑동은 더운 연기를 쐬 살균한 뒤 비닐로 밀봉했다.

또 여수 일대에서는 지난 2010년도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6일까지 여수를 비롯 한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는 우화시기인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곤충을 없애기 위해 항공방제에도 나선다.

재선충은 투명한 0.9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의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재선충 1쌍이 20일 만에 무려 20만 마리를 번식해, 매개 곤충에 붙어 다른 나무로 옮겨가며 빠르게 피해를 키운다. 지난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

도로 확산돼, 2005년 무려 56만6000그루가 감염되는 등 최고조에 달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1997년 구례군 마산면 금정암에서 첫 발견 됐고, 지난 2001년 목포 유달산, 신안과 영암 등 3개 시군 총 23ha에서 2564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최근 경기 용인, 충남 보령, 경북 포항 등지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되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산림청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발견,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목 불법이동 및 반출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찾은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광주를 방문, 광주 테크노파크 타이타늄 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신입생 12명... 재정지원도 '뚝'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광양캠퍼스 존폐 위기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설치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광양캠퍼스(STC-Korea)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5년) 재정이 지원이 끊어지는데다 설립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해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07년 네덜란드 광양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듬해 개교했다. 이 대학은 네덜란드에 본교를 둔 해운 특성화 대학으로 1년 석사과정이다. 개교 첫해인 2008년 신입

생 17명을 시작으로 2009년 29명으로 늘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줄어 2010년 19명, 지난해 11명, 올해는 현재 12명이 입학 전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양시 등이 네덜란드 물류 대학과 협약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학 운영비 등으로 43억여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지원이 끊겼다는 점이다. 올해 편성된 3억원은 학생 유치와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학생 수도 급감하는데다 지원마저 끊기게 되면 광양

캠퍼스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교육성과를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한 전시행정이 막대한 예산만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매년 광양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가며 공무원(8명)을 파견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의회 장명환 의원은 "5년 지원계획이 끝났음에도 대책도 없이 존치만 고집한다면 이는 개진 독에 물만 부는 것"이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목포·순천·여수역 주변

도, KTX역세권 개발 착수

전남도는 목포·순천·여수역 주변을 '고속철도(KTX) 역세권 비즈니스·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KTX 역세권 개발에 나선다.

도는 2일 "영역별 3억원을 들여 이 들 역을 대상으로 KTX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복잡하고 넓은 목포역과 순천역의 경우 의료·쇼핑·비즈니스·물류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역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여수역은 역 주변을 지역 산업 특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 전국 지자체 첫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광주시와 인권단체들이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건설 일용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모두 12개 사업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캠프, 찾아가는 장애인권고실, 인권영화제작교실 사업, 새터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인권대학 사업도 선정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간부공무원과 긴급 회합·홈페이지에 사기 진작 메시지

강운태 시장, 조직 추스르기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주말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합을 가진데 이어 2일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글을 올려 소통과 단합을 강조하는 등 총인 임찰버리 사태 이후 흐트러진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과 시 분청 및 사업소의 실·국장급 간부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구 서창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최근 빚어진 총인사태와 이기신 비서실장의 사퇴 등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등 조직 내부 분위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사 하루 전날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는 등 긴급히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 간부들은 "민선 5기 들어 업무가 폭주하면서 상당수 공직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적인 부분 외에 감성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줄 것 등을 건의하는 등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 이 바쁘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요구하면서도,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진정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2일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렸다. 공직자들을 '동지'로 지칭, 시장과 공무원이 한 가족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한 이 글에서 강 시장은 "지난

1년 9개월간 광주시가 이룬 수많은 일들은 동지 여러분이 99%를 하고 저는 1%를 보냈을 뿐"이라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업어주고 싶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적었다. 강 시장은 또, "저 자신 동지 여러분과의 허심탄회한 만남과 배려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시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2일 사퇴한 이기신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시장 비서실장직을 떠난 이기신 동지의 앞날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후임 비서실장에는 최현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내정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시 5개 국제행사 유치 추진

광주시가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한 5개 국제행사 유치에 나섰다.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수도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4월 정례회'에서 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열릴 예정인 5개 국제행사를 유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유치를 추진중인 국제행사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의위원회

2014년 열리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그리고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총회, 2019년 제18회 세계수업선수권대회 등 5개다. 이 가운데 세계한상대회는 올해까지 국내에서 11번이 열렸지만 호남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행사다. 오는 5월 2일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의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위원과 수형원까지 50여명 정도가 방문한다. 유치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는 10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1차 우선협상도시로 선정됐으며,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디자인연맹 총회에는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디자이너 4000여명이 모이게 된다. 광주시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의 3개 도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내년 12월 개최지가 선정된다.

세계수업선수권대회는 선수 2500명과 기자단 3000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세계수업연맹에 유치희망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개최지는 내년에 투표로 결정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항상성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사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증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204-4738호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월 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량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월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살가래액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